짜빈동전투의 고찰

이 글은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 해병 1개 중대가
월맹군 1개 연대를 격퇴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소부대 지휘관의 탁월한 지휘능력과 투철한 군인정신이
이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 것이다.

서 언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은 1965년 10월 9일,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월남을 돕기 위하여 전투부대로서는 최초로 캄란(Cam Ranh)에 상륙하였다.

이곳에서 미 제101공수사단으로부터 투이호아(Tuy Hoa)지역에 대한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한 해병여단은 청룡 1호작전을 비롯한 많은 전투를 실시하여 월맹군과 베트콩을 섬멸하고 캄란에서 투이호아 간의 적성지역을 평정하였다.

그후 1966년 9월 22일 한국군 제9사단이 월남전에 증파되어 닌호아(Ninh Hoa)지역에 주둔하게 되자, 해병여단은 여단이 맡았던 전술책임지역을 제9사단에 인계하고 휴전선 남쪽 280km 떨어진 추라이(Chu Lai)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월남군 제1군단으로부터 460km²에 달하는 새로운 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한 해병여단은 파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개념에 따라 중

요 지형지물을 선정하여 기지를 설치, 월맹군과 베트콩의 침투를 저지하고 있었다.

해병여단이 투이호아에서 추라이로 이동한 지 5개월이 지난 1967년 2월 14일, 짜빈동 마을의 낮은 구릉상의 중대전술기지를 방어하고 있던 제11중대가 월맹군 제2사단 제1연대의 야간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이 중대는 강력한 월맹군 1개 연대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1966년 8월 9일의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9중대가 실시한 둑코(Duc Co) 전투와 더불어 당시 한국군이 설치한 중대전술기지의 전술적 중요성을 입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짜빈동(Tra Binh Dong)전투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돌이켜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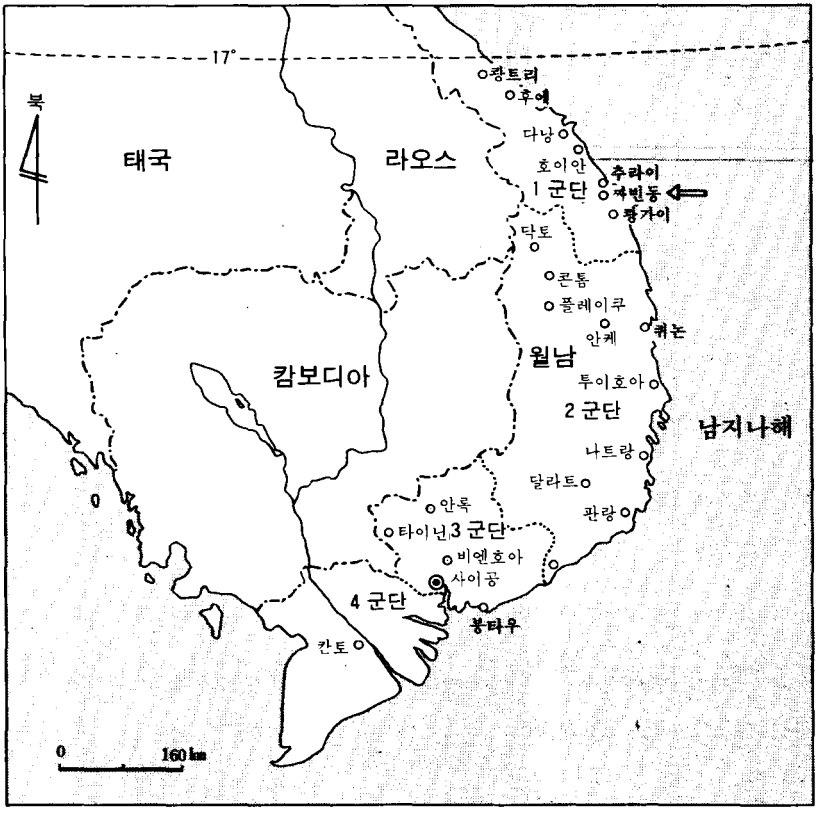
짜빈동전투의 배경

해병 제2여단이 담당한 전술책임지역은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80km,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540km 떨어진 파월한국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추라이 지역으로서 그 넓이는 460km²에 이르렀다.

1966년 9월 이곳으로 이동한 이래 해병여단은 5개월 동안 7회의 대대급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격멸하고 지역을 평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67년에 접어들면서 월맹군 제2사단은 각종 포와 중화기로 장비한 일부병력을 여단 전술책임지역내에 추가 침투시켜 전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부대를 주요지역에 재배치하고 여단본부 및 중대기지의 기습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한국군 해병여단을 격파함으로써 월남군 제1군단지역의 후방을 위협하는 한편, 짜봉강과 바탄간(Batangan) 반도의 해상침투로를 회복하여 서쪽 산악지대로 이르는 통로를 개척하려 하였다.

짜빈동 전투지역



당시, 해병여단은 이러한 적의 기도가 '67구정휴전이 끝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각중대에 전술기지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각 중대는 구정을 전후하여 진지보강과 병력충원 그리고 각종 장비의 점검 등,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중, 2월 14일 밤 11시에 제11중대가 월맹군 1개 연대의 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파월한 국군 전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작전 경위

이 전투는 제11중대가 그들의 중대전술기지를 공격한 월맹군 제2사단 제1연대를 혈전끝에 격퇴하고 기지를 사수한 전투이며, 1967년 2월 14일 23시부터 다음날 아침 07시 30분까지 실시되었다. 이들이 최초로 공격한 것은 2월 14일 23시였으며 이때는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중대기지를 기습공격하였으나, 사전에 철통같은 방어배비를 하고 있던 제11중대 장병들에 의하여 일단 격퇴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새벽 04시에 다시 2개 대대의 병력을 투입하여 전술기지 일부를 유린하고 돌파구를 형성하였다.

이때 제11중대 장병은 혼연일체가 되어 진내에 침투한 월맹군과 육박전을 전개하여 07시 30분에 돌파구를 회복하고 전투를 승리로 종결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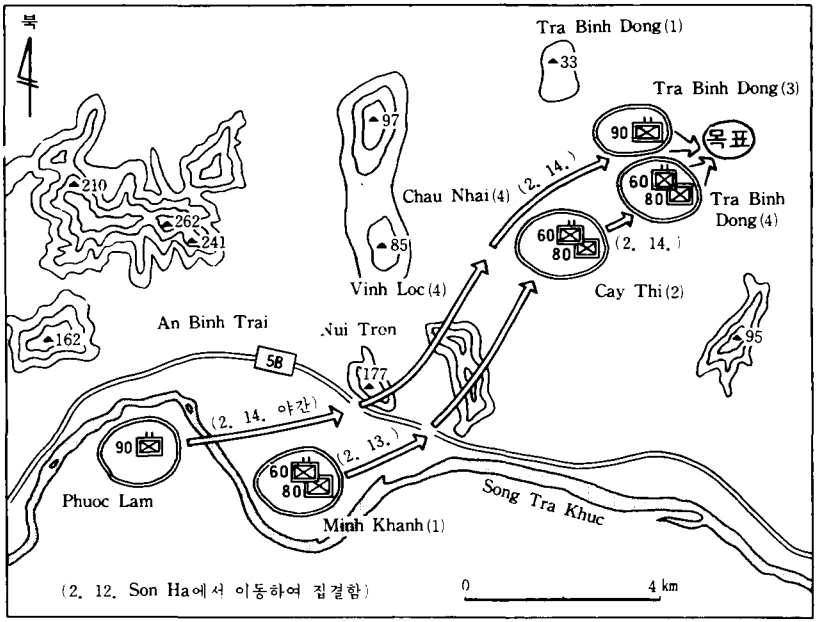
월맹군의 공격준비 월맹군 제2사단에 의해 감행된 이 전투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시된 작전이었다. 이 전투가 끝난 후 월맹군의 유기시체에서 노획한 문서와 포로의 진술이 이를 입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작전은 제2사단 제1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한국군 해병여단의 1개 중대를 격파한 다음, 여단사령부와 화력지원부대를 공격한다. 이때 월맹군 제21연대와 베트콩은 연합군의 증원부대를 차단한다.

○ 제1단계작전이 성공하면 계속하여 그 여세를 몰아, 추라이와 쾅가이 지역으로 진격한다.

○ 제2단계작전이 끝나면 일단 부대를 재편성하여 병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전황의 추이를 보면서 다시 1번도로변의 둑포(Due Pho)지역을 공격한다.

월맹군의 이동방향



이 때에, 월맹군 제2사단의 전투력은 각종 공용화기 110문을 장비한 5,730명 규모이었다. 그리고 제11중대 전술기지공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월맹군 제1연대의 전투력은 각종 공용화기 39문을 장비한 2,630명 규모이었다.

이러한 계획하에 공격준비를 완료한 월맹군 제1연대는 산악지대인 손하(Son Ha)를 출발하여 2월 12일에 제60대대와 제80대대가 짜쿡강 북쪽의 민칸 (1) 마을로, 그리고 제90대대는 짜쿡강 남쪽의 푸옥람 일대로 진출하였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13일, 다시 기동을 개시한 제60대대와 제80대대는 빈록(4)과 차우나이(4) 마을로 이동한 다음 14일에는 제11중대 전술기지 부근에 잠복하였으며, 제90대대도 14일 야음을 이용하여 공격대기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해병여단의 방어태세

여단 및 대대의 조치　1966년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휴전기간중, 월맹군은 반탄간반도로부터 서쪽의 산악지대로 병력과 장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해병여단의 전술책임지역에서 급격히 도발행위를 증가시켰다.

해병여단은 이와 같은 월맹군의 징후를 감안하여 각 중대에 특별경계지시를 하달하는 동시에 가장 유력한 월맹군의 공격목표로 추정되는 제11중대기지를 보강하기 위하여 2월 13일 제1대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동중대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여단장 김연상(金然翔) 준장은 직접 제11중대기지를 방문하여 중대장 정경진(丁京鎭) 대위에게 "서쪽 산악지대에 월맹군 6개 대대가 집결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 목표가 제11중대기지라는 첩보가 있으니 소대급 정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조형남(曺亨南) 중령도 대대본부의 외각을 방어하고 있던 제11중대 1개 소대를 2월 4일 원대복귀시켰으며, 2월 12일에는 대대본부의 106mm 무반동총 1정을 동중대에 배속시켜 화력을 증강시켰다.

제11중대의 전투 준비　제11중대는 당초 여단예비대로 있었으며, 1966년 11월 21일 제9중대로부터 동기지를 인수받은 후 주변에 대한 탐색활동을 실시하면서 1월말에는 기지 일대의 진지구축을 완료하였다. 동중대의 전술기지는 표고 30m의 낮은 구릉으로서 둘레 800m, 남북직경 300m, 동서직경 200m의 계란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축상에 두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동중대 전술기지의 편성은 내곽과 외곽에 2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교통호의 길이는 약 800m로서 전투간에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교통호를 따라 옆으로 많은 토끼굴을 마련하여 적탄이 떨어질 때, 대피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기 및 개인호의 반수 이상을 유개호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애물은 외곽에 40~50m의 폭을 가진 2중의 단선 철조망 1,

100m와 5중의 원형 철조망 1,000m를 가설하였으며, 적의 예상접근로에는 M16대인지뢰 140발, 크레모아 63발, 조명지뢰 38발을 종심깊게 매설하였다.

중대전술기지에 배치된 총병력은 294명으로 제1소대가 남—서, 제2소대가 남—동, 제3소대가 북—서쪽으로 배치되었으며, 내곽에 배속받은 제1중대 제3소대를 1개 분대씩 각소대 후방에 배치하여 전방소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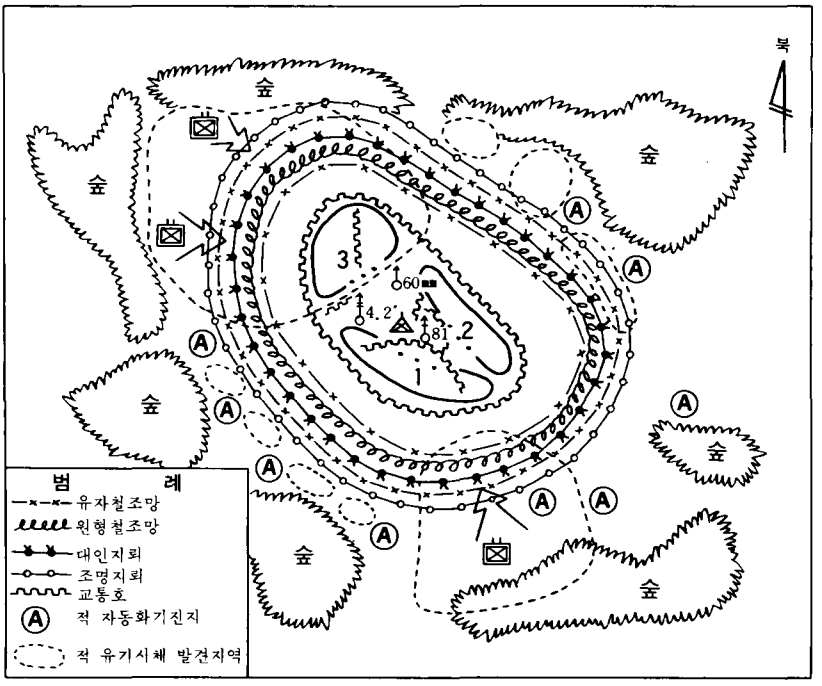
그리고, 화력은 기관총과 106mm 무반동총을 진지외곽에, 4.2″와 81mm, 60mm 박격포는 진지내곽에 각각 배열하였다. 한편, 적의 예상접근로에 105mm 곡사포와 81mm 박격포, 그리고 60mm 박격포의 화집점과 사각지대에 탄막을 구성하였다.

월맹군의 제1차 공격(2월 14일) 1967년 2월 14일(음 1월 7일)의 초저녁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게 비치더니 22시부터 짙은 안개와 함께 검은 구름이 덮이면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계가 불량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찬 바람마저 몰아쳐 청음도 곤란하였다.

중대장 정경진대위는 여단의 정보판단과 최근 기지주변에서 일어난 월맹군의 동향, 그리고 2월 17일부터 실시예정인 '거룡작전'의 준비, 거기에다 15일 해병대사령관 강기천중장의 중대 순시 등으로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날따라 날씨마저 악화되어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소대장과 하사관들을 지휘소로 불러 여단의 정보판단과 심상치 않은 월맹군의 동태를 상기시키고 오늘밤은 예감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전례로 보아 적은 통상 악천후를 공격의 호기로 삼으니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시계가 좋지 않으니 청음초를 증강하고 통신상태를 재점검하여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만약에 전투가 일어나면 평소 땀흘려 쌓아온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월맹군의 공격 방향



중대장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각 소대장과 하사관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 병사들의 근무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가 23시경이었다.

이때, 제3소대 전방에서 청음초로 근무하던 제1분대 박기장 일병이 전방 15m 지점에서 수미상의 월맹군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순간에 요란한 폭음과 함께 철조망 15m 정도가 절단되었다.

중대장은 즉시 전 중대원에게 전투태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옆에 있던 화기소대장 김기홍 중위에게 4.2"와 81mm 박격포의 조명탄을 띄워 적정을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그후 대대장에게 월맹군의 공격이 개시되었다는 전황을 보고하면서 포병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한편, 제3소대 제1분대장 배장춘 하사는 자기분대 정면의 철조망이

절단되자 재빨리 현장에 달려가 보니 30여명 정도로 보이는 월맹군이 철조망만을 파괴한 채 숲속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그 즉시, 청음초와 함께 진지로 복귀한 배하사는 중대장에게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에는 꺼지지 않던 남쪽마을의 불이 모두 꺼지고 있었다.

중대장은 깊은 밤이라 이들을 추격하지 못하고 그들의 퇴로에 포격만을 가하였으며, 얼마후 제3소대 제1분대에서 철조망 위에 쓰러져 있는 월맹군의 시체 1구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제11중대는 월맹군의 1차공격기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그러나 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아군과의 접전을 피하고 철수한 월맹군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 적은 아군을 밤중에 교란시킴으로써 피로와 수면부족을 일으키게 하여, 취약한 시기를 조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공격할 것이다.
- ○ 적은 기상악화로 아군의 항공지원이 곤란하고 조명효과가 감소되어 관측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할 것이다.
- ○ 교전후에 오는 아군의 긴장해이와 방심을 기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심한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기지를 돌아다니면서 각 소대장과 하사관들에게 월맹군의 재차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는 동시에 경계상태를 계속 확인하였다.

월맹군의 제2차 공격(2월 15일) 월맹군의 제2차 공격은 15일 04시에 개시되어 07시 30분에 종결되었다. 그 내용을 전황의 추이에 따라 진지 외곽전, 진내 육박전, 역습, 증원 및 전과확대의 순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진지 외곽전 월맹군의 1차공격을 물리친 제11중대 장병들은 다시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긴장속에서 한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새벽인 15일 04시경, 제3소대 전방에서 부슬비를 맞으며 청음초로 근무중이던 제1분

대의 조정남 일병과 도성용 일병은 철조망 밖에서 수미상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조장인 조일병은 적이 접근하고 있다는 직감에서 도일병으로 하여금 전방을 계속 감시하도록 하고 자신은 소대장에게 달려와서 상황을 보고하였다.

예상했던 월맹군의 대부대 공격임을 판단한 중대장은 각 소대장을 유선으로 불러, "지근거리까지 적을 유인하여 육안으로 확인될 때 사격하라. 그리고 한국군의 명예와 무적해병의 전통을 위하여 최후의 일각까지 용전분투하고 진지를 사수하라."고 엄명하였다.

이어 모든 청음초를 철수시킨 중대장은 우선 4.2"의 조명탄을 띄워 적정을 살폈다. 이때 철조망 밖에는 벌써 월맹군이 새까맣게 밀려오고 있었으며, 그들의 박격포탄이 기지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중대장은 즉시 사격명령을 하달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에게 포병지원 사격을 요청하여 사전에 계획된 화집점에 포사격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월맹군은 지휘부를 노리는 듯, 중대관측소 부근에 10여 발의 박격포탄을 사격하였다. 그중 1발이 관측소에 명중하였으나 중대관측소가 유개호로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무전기의 안테나만 절단되었다.

중대장은 각 소대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적은 현재 남동쪽의 제1소대 정면에 1개 대대, 북서쪽의 제3소대 정면에 1개 대대가 전개하고 있으며, 증원부대는 제2선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들은 남·북에서 중대기지를 협공하여 중대를 양단한 다음 각개격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3소대의 전황 중대기지 북서쪽의 제3소대 정면의 월맹군은 각종 박격포와 자동화기 사격을 집중시키면서 소대정면으로 밀려들었다. 04시 20분경 "쾅" "쾅"하는 연속적인 폭음과 함께, 철조망이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10m 정도의 돌파구가 뚫렸다.

곧이어, 월맹군은 "와" "와"하는 요란한 괴성과 더불어 북과 징을 울리고, 호각을 불면서 파괴된 철조망 사이로 돌진하였다. 그들은 아군의

포격과 크레모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고 내곽의 교통호를 향해 접근하였다.

이리하여 조용하기만 하던 중대전술기지는 콩을 볶는듯한 총소리, 지축을 뒤흔들며 작렬하는 포탄과 크레모아의 굉음, 사상자의 울부짖는 비명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였다.

배장춘 하사가 지휘하는 제1분대원들은 분대정면으로 몰려오는 월맹군을 향하여 M 79유탄발사기와 수류탄으로 대항하여 무수히 적을 쓰러뜨렸으나,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은 채 계속 진내로 파고들었다. 이른바 인해전술이었다.

그러나, 제1분대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학현 상병과 김동재 일병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소총을 휴대하지 않은 적 5명이 수류탄을 들고 분대에 접근하다가 15m 전방의 오물구덩이에 빠져 우물거리는 것을 목격한 이학현 상병은 포복으로 기어나가 수류탄 2발을 던져 이들을 모두 처치하였다. 이리하여 월맹군의 제1진은 공격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04시 30분경에 제2진이 횡대로 산개하여 다시 돌진하였다. 분대장 배하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죽음으로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물러나면 소대는 전멸이다. 다시 용기를 내자."고 외치면서 분대를 지휘하였다. 이때, 부상당한 김동재 일병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으며, 자동소총수 김명덕 일병이 부상을 입었다. 사격이 곤란하게 된 김일병은 자기의 자동소총을 분대장에게 넘겨주고는 전사한 김동재일병의 수류탄과 자신의 진지에 있는 수류탄을 모아 적이 접근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들에게 대항하였다.

한편, 김일병으로부터 자동소총을 넘겨받은 배하사는 진내로 몰려오는 월맹군에게 사격을 집중하여 10여 명을 사살하고, 이학현 상병은 총검으로 이들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제1분대는 혼연일체가 되어 싸운 결과, 월맹군의 제2진도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소대의 전황 제3소대가 최초로 적과 접전하고 있을 때, 남동쪽을 방어하던 제1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진지를 돌아다니며 소대의 배치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였다. 제1소대 지역에서도 잠시 후, 제3분대 정면에서 요란한 폭음과 함께 철조망 15m 정도가 파괴되면서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월맹군은 이를 신호로 마을과 숲속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파구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소대원들은 파상공격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집중사격과 크레모아를 터뜨리면서 이들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중과부족이었다. 소대장 신소위는 자욱한 포연으로 말미암아 조명이 비치는데도 옆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선임하사 김용길 중사에게 우일선인 제1분대와 화기분대를 지휘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월맹군의 주력이 집중되고 있는 제2분대와 제3분대만을 지휘하였다. 신소위는 철조망이 절단된 곳이 적의 침투로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관총과 자동화기를 그곳에 지향하도록 하는 한편, 60mm와 81mm 박격포사격을 요청하여 적 후속부대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이때, 인접 제3소대 일부가 돌파되자 신소위는 이제 우리 소대마저 뚫리면 중대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지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에게, "실탄을 아껴라. 적은 대부대이다. 자기 사격구역을 자기가 책임을 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선임하사 김용길 중사도 대원들에게, "죽더라도 자기 진지를 이탈하지 말고 호속에서 죽자."고 외치며 이들을 격려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는 밀려오는 적을 진전에서 모두 격퇴하고 기지를 사수하였다.

진내 육박전 제11중대 장병들은 사주에서 위협을 가하면서 파상공격을 감행하는 월맹군에 대하여 제1소대는 그 거센 공세를 일단 둔화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제3소대는 적의 공세가 점차 증가되어감으로써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박격포와 자동화기사격은 정확하고 치열하여 전투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5일 04시 40분 적은 제3소대 정면을 돌파하여 진내까지 침투하였다. 그들은 중대지휘계통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모든 화력을 중앙에 있는 관측소 부근에 집중시켰으며, 그중 1발이 관측소에 명중되어 부중대장 양백수 대위가 부상을 하였고 또 1발은 4.2″ 탄약고에 명중되어 10여 발의 포탄이 폭발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은 지휘소를 파괴된 관측소에서 상황실로 옮기고 이들의 기세를 꺾기 위하여 그 이후의 화력운용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조치하였다.

○ 105mm 및 155mm 곡사포는 적의 박격포진지를 제압한 다음 후속부대를 차단하라.

○ 60mm와 81mm 박격포는 철조망 안쪽의 근거리사격에 중점을 두고 4.2″ 박격포는 조명사격을 계속하라.

○ 106mm 무반동총은 제3소대 전면에 지향하라.

제3소대의 전황 제3소대는 04시 40분에 제2분대와 제3분대가 적에게 밀려 우측의 제1분대쪽으로 몰리자, 제1분대 좌측에 있는 바위를 경계로 소대정면의 2/3가 뚫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3소대는 진내로 침투한 적과 최초로 육박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숫적으로 우세한 월맹군은 총검을 휘두르면서 "따이한 라이라이", "청룡 라이라이"하고 외쳐대며 동료들의 시체를 넘어 전진을 계속하였다.

제3소대장 이수현 소위는 원위치에서 지휘가 곤란하게 되자 일단 제1분대 뒤쪽으로 물러났으나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이때 적의 제1차 공격시 부상을 입은 이학현 상병과 조정남 일병은 교통호를 따라 접근하는 5명의 월맹군을 발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들을 처치하였으나, 그들 뒤에서 사격한 적탄에 맞아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다.

이와 같이 전우가 숨져가는 광경을 목격한 오준태 일병은 치밀어 오르는 적개심을 참을 수 없는 듯, 온몸에 파편상을 입은 채 혈전을 계속한 후 끝내 숨져갔다.

한편, 경기관총 부사수 이해수 일병은 사수 김남섭 상병이 전사하자 그

의 임무를 대행하였으며, 소총수 송요섭 일병도 적탄에 맞아 중상을 당하였다.

제1분대장 배장춘 하사는 대부분의 분대원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데다가 실탄과 수류탄마저 거의 소모되자 총검으로 월맹군과 대항하던 중 그 또한 수류탄에 맞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었다. 그는 무전기의 스위치를 팔꿈치로 간신히 누르고 "우리 분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다가 모두 이 자리에서 죽겠읍니다."라고 소대장에게 비장한 결의를 말하고는 단신 이들과 혈투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소대 선임하사 김준관 중사는 배하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자 그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싸우겠읍니다."하며 거절하였다. 김중사는 배하사를 억지로 중대본부 지역에 옮겼으나 그는 곧 숨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제1분대원들은 분대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진내로 침투한 월맹군과 처절한 전투를 계속하여 초인적인 수훈을 세웠다.

제1소대의 전황 제1소대는 소대장의 탁월한 지휘하에 끈질긴 월맹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월맹군은 정면공격이 좌절되자 90여m 후방으로 후퇴하여 그곳에 있는 길이 5m, 높이 1m의 바위 뒤에 경기관총을 거치하고 치열한 사격을 가하면서 재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때, 소대장 신원배 소위는 바위 뒤의 적을 그대로 둔다면 피해가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특공조를 편성하여 그 지점의 화기진지를 분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통신병 조용화 상병을 데리고 교통호로 내려와 병사들에게, "나는 적의 공용화기진지를 파괴하려 한다. 나를 따를 사람은 나오라."고 외쳤다. 이때 사격에 여념이 없던 소대 선임하사 김용길 중사와 이진병장이 선뜻 나서며 "저희들이 따르겠읍니다."하며 소리치듯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소대장을 비롯한 4명의 특공조가 편성되었다. 소대장은 출발에 앞서 향도 임형근 하사에게 "나는 기필코 적진지를 파괴할 것이다. 만약에 선임하사가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나와 같이 죽는다면 임하사가

소대를 지휘하라."고 비장한 결심으로 지시한 후, 곧 적진으로 향하였다.

그는 오직 이 길만이 부하를 살리고 중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포복으로 문제의 바위에서 15m 떨어진 다른 바위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곳에서 특공조는 바위를 은폐물로 삼고 수류탄 4발씩을 준비한 다음, 소대장은 향도 임하사에게 무전연락하여 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집중사격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특공조는 조명이 약간 희미해지는 순간을 이용하여 목표지점에 수류탄을 집중 투척하자 연속적인 폭음과 함께 기세를 부리던 적의 자동화기는 사격을 멈추었다.

이윽고, 특공조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적 거점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경기관총 1정과 유탄발사기 3문을 노획하여 소대로 복귀하였다. 본 짜빈동전투가 끝난 다음 바위뒤에서 적시체 18구가 유기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화기 5정과 수류탄 100여발을 추가로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소대는 이 전투에서 세운 무공을 인정받아 소대장 신원배 소위가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뒤에 5·16민족상 안전보장부문 장려상을 수상받아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안았다. 그리고 선임하사 김용길 중사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제2소대의 전황 제2소대장 김성부 소위는 인접 제3소대의 정면이 돌파되자 곧 제2소대마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형성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때, 제3소대 제1분대장 배장춘 하사가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채 제2소대 지역으로 간신히 기어와서 제2분대장 오승환 하사에게 "우리 분대 앞에 적이 몰려와 고전중인데 대부분의 분대원이 전사하였다. 급히 지원하여 달라."고 당부한 후 되돌아갔다. 오하사는 즉시 이 사실을 소대장에게 보고하자, 소대장은 좌측의 제2분대를 제3소대쪽으로 이동시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중앙의 제3분대장에게 제2분대의 정면을 담당케 하였다.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한 제2소대장 김성부 소위는 제2분대와 제3분대가 잘 보이는 위치로 나아가 양 분대를 지휘하여 그곳에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였다.

제1중대 제3소대의 전황 2월 13일 제11중대에 배속된 제1중대 제3소대는 최초에는 제11중대의 각 소대 후방에 개인천막을 치고 1개 분대씩 배치되었다. 그러나, 14일 23시 월맹군의 제1차 공격이 있었을 때, 주공방향이 제3소대 정면으로 지향되자,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전소대를 제3소대 후방으로 이동시킨 소대장 정정상 소위는 곧바로 제1분대를 우, 제2분대를 중앙, 제3분대를 좌로 하여 전투준비를 완료하였다.

소대는 정면의 제3소대가 무너지면서 월맹군이 진내에 침투하자, 그들과 치열한 육박전을 전개하여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였다. 소대 향도 정봉구 하사는 제1분대의 김수만 병장이 부상당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달려갔다. 이때, 월맹군 2명이 김병장을 사살하려고 하는 순간, 정하사는 재빨리 뛰어들어 카빈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이들을 처치하고 소대원을 위기에서 구출하였으며, 기관단총 2정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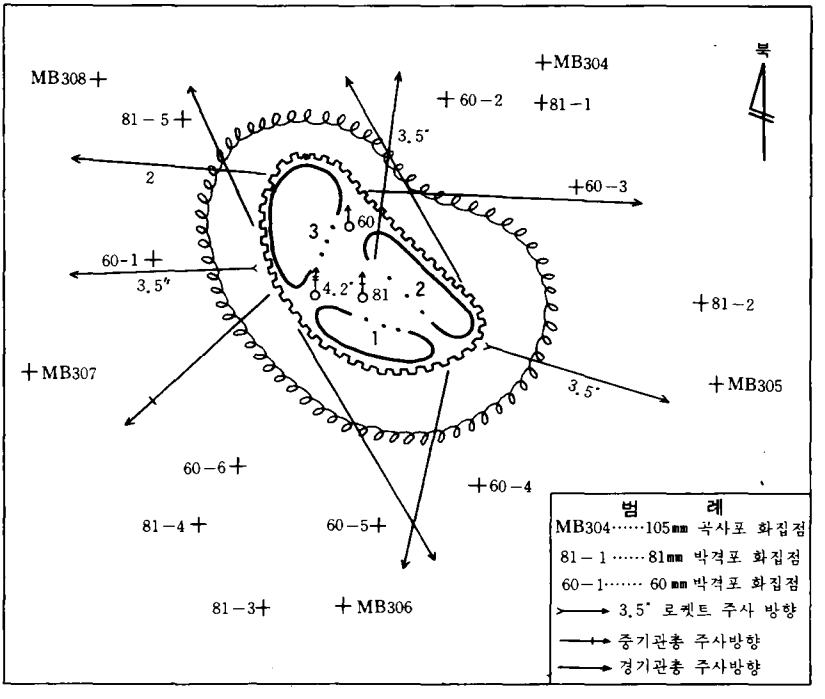
한편, 제2분대와 제3분대 지역에서도 진내에 진입한 월맹군과 처참한 백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저지하였으나, 이때 4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력지원부대의 활동 제11중대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포병대대장 이갑석 중령은 105mm 1개 포대에 2개 포대를 추가하여 적의 후속부대 차단을 위한 포격을 실시하도록 하고, 155mm 포대는 조명사격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제11중대 포병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는 평소 자신의 수첩에 기록해 두었던 월맹군의 예상 박격포진지에 포탄을 사격하였으며, 그들의 지휘소로 추정되는 북서쪽의 돌산을 강타하도록 포병사격을 유도하였다.

또한, 4.2″ 박격포소대장 이정국 중위는 월맹군이 포진지 부근까지 육박하여 더이상 사격이 곤란하게 되자, 우선 포를 은밀한 곳에 은닉하고 전소대원을 포진지 주변에 배치하였다. 그후 자신이 직접 선두에 나서

제11중대의 화력계획



포를 파괴하기 위하여 잠입하는 월맹군과 수류탄으로 격전을 벌이면서 포를 보호하였다.

한편 81mm 박격포반장 심재정하사와 사수 이지용병장은 포를 향하여 기어오는 월맹군을 총검으로 막아내었다. 그리고 106mm 무반동총 분대장 김광정하사와 김광태일병도 폐쇄기를 뽑아 은닉하고 자신들은 포를 분해하여 토끼굴에 감춘 다음 육박전으로 대항하였다.

그리고, 60mm와 81mm 박격포반도 사격이 어렵게 되자, 반장 김상열중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화기를 모두 탄약고 뒤편에 숨긴 다음 소총과 수류탄으로 적과 격돌하는 등 극한적인 격전을 전개하여 단 1문의 포도 손상됨이 없이 이를 보호하는데 성공하였다.

여단 및 대대 전술지휘소의 조치 14일 23시 최초로 월맹군의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여단 상황실에서는 여단장과 참모들이 함께 전황의 추

이를 주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여단장 김연상 준장은 예하 각대에 경계강화를 지시한데 이어 전황에 따라 증원부대를 투입할 것을 결심하고, 15일 05시 제2대대 제6중대를 이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06시에는 제3대대장 조형남 중령을 무전으로 불러, "전세는 절대적으로 아군이 유리하며 승리는 제11중대의 것이다. 최후까지 침착한 지휘와 왕성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한놈의 적이라도 놓치지 말고 격멸하라. 증원부대를 비롯한 모든 지원태세는 완벽하다. 무적 해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러한 여단장의 격려 전문은 격전중에 있는 제11중대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으며 이것이 전승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대장은 계속되는 제11중대의 전황을 보고받고 포병대대장 이갑석 중령과 상호 협의하에 포병지원 사격을 간단없이 적의 접근로에 지향시키는 한편, 미 공군의 수푸커를 공중대기시키고 있었다.

역　　습　　월맹군은 해병여단의 용전분투에 의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15일 06시 30분에 날이 밝아오자, 월맹군은 공격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듯 약화된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제1소대와 제2소대는 마침내 이들을 저지하였다.

중대장 정경진 대위는 이때를 역습의 호기로 판단하고 제3소대 정면의 돌파구에 대한 역습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일단 사격으로써 돌파구내의 적을 완전히 제압한 후 제1소대 제2분대를 좌, 제2소대 제2분대를 우로 한 대형으로 양측방에서 압력을 가하여 돌파구의 입구를 차단하고 안팎의 적을 양분시켰다.

그리고, 중대본부와 제3소대의 일부 병력으로 특공대를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화기소대장 김기홍 중위로 하여금 지휘하도록 하여, 돌파구의 첨단인 기지 중앙의 관측소에서 돌파구의 입구를 향해 일제히 진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돌파구 안에서 진퇴유곡에 빠진 월맹군은 제11중대의

거센 기세에 압도되어 우왕좌왕하며 교통호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든 화력과 수류탄을 그곳으로 집중시키고 제1소대 전방에서 사격중이던 경기관총 2정마저 합세하여 사격을 가하자, 월맹군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쓰러지고 또 쓰러졌다.

이리하여, 07시 12분에는 몇명 안 되는 생존자들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퇴각하려 하였으나, 이미 제1소대와 제2소대가 돌파구의 입구를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독안에 든 쥐모양 갈팡질팡하였다. 이때, 중대 장병들은 이들을 포로하기 위해 "라이라이"라고 외치면서 투항을 권유하였으나, 끝까지 저항하므로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1명만을 생포할 수 있었다.

전과확대 및 증원부대 투입 진내에 들어온 월맹군이 07시 20분에 모두 섬멸되자, 진지 외곽에서 공격중이던 수미상의 월맹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북서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대는 가용화력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강타하는 한편 일부 병력으로 이들을 추격하게 하였다.

이때, 미 해병 전방항공 통제조의 짐 폴타(Jim Polta)와 존 호톤(John Houghton) 상병은 공중대기중이던 수푸커에서 도주하는 병력들을 목표로 지시하였는데, 곧 4대의 전폭기가 기지 상공에 나타나 이들의 유도에 따라 월맹군을 맹타하였다.

또한, 패주하는 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이때 기지상공에 나타난 여단의 0-1 관측기가 저공을 비행하며 '해병'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양날개를 흔들자, 앞서 격전에 지친 장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호응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여단본부에서는 최형곤 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를 증원부대로 그곳에 투입하기로 하고 05시 20분부터 출동대기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내리는 비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여 헬리콥터의 운용이 곤란하여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투가 거의 종료될 무렵인 07시 30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6중대의 제1제대가 격전지인 제11중대기지 남쪽의 헬리콥터장에 착륙하게 되었으며 08시 30분에 마지

막 제대가 도착하였다.

제6중대 장병들은 곧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였으나, 이들과 접촉을 유지할 수가 없었으며 16일까지 월맹군의 유기시체 124구를 확인하고 부상한 월맹군 1명을 생포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대대장 조형남 중령은 15일 10시에 부대대장 차수정 소령을 현지에 보내 증원부대인 제6중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를 통합 지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8시간 30분 동안 전개된 치열한 짜빈동전투는 종결되었다.

결 언

제11중대는 한국해병의 전통정신인 임전무퇴의 기백과 강인한 투지로써 압도적으로 우세한 월맹군 1개 연대의 공격을 8시간 30분의 격전 끝에 그 주력을 격파하고 기지를 끝까지 방어하여 한국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선양하였다.

이 전투에서 월맹군은 243명의 전사자와 대대장을 포함한 수백명의 부상자를 내고 짜쿡강을 건너 남쪽으로 퇴각하게 되었으며, 주공부대인 월맹군 제1연대는 그들의 공격목표인 제11중대 전술기지 공격에 실패함으로써 쾅가이와 둑포지역의 점령도 이로써 좌절되었다.

한편, 연합군측에서는 1966년 9월의 '둑코전투'로 한국군의 중대 전술기지 개념의 실효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 전투의 승리로 다시 한번 중대 전술기지 개념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한국군이 보유한 M 1소총은 적의 AK소총보다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이 실증되어, 파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미국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전투가 끝난 다음, 전투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에게는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한 각종 훈장과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전사병은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군은 이 짜빈동전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수 있었다.

① 정확한 정보판단 없이는 전승을 가약할 수 없다. 이 전투에서 해병 제2여단은 사전에 적의 동태와 각종 첩보를 획득하여 적의 공격징후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들의 예상목표인 제11중대에 소총 1개 소대와 106mm 무반동총 1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력과 화력을 사전에 증강시키고 정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② 지원화력의 적절한 운용은 피지원부대의 열세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모든 전투에서 화력의 적절한 운용은 승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전투에서 관측장교 김세창 중위는 치밀한 화력계획과 이의 운용을 통하여 적의 후속부대를 차단하고 그들의 공격력을 둔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③ 소부대 지휘자의 우수한 통솔력은 대세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월남전에서는 항상 소부대 지휘자인 분대장과 소대장의 지휘능력이 강조되었다. 이 전투에서, 통신이 두절되고 진내 상황파악조차도 어려운 혼란의 극한 속에서도 맡은바 진지에서 부하들을 독려하며 용감히 싸운 분·소대장의 강인한 지휘력은 이 전투를 승전으로 이끈 밑거름이 되었다.

④ 증원부대의 투입은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전투에서 증원부대의 투입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증원 부대인 제6중대가 기상관계로 적이 모두 퇴각한 지 1시간이 지난 08시 30분에야 제11중대기지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과확대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魏 泰 善(전사편찬위원)